

# SUNBO NEWS

LET'S GO 2025 |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선보 Family 연탄 봉사 10주년, 사하 이웃에 따스한 온기 전달 “3.65kg의 나눔이 36.5도의 마음을 충전합니다”

선보 Family가 매년 겨울 꾸준히 진행해온 사랑의 연탄 후원과 봉사활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강추위가 전국을 매섭게 때린 12월의 첫 주말 토요일(3일), 선보 임직원 가족 100여 명은 아침 일찍 사하구 감천동 일대 산복도로에 집결했다. 임직원 가족은 부산연탄은행 사회복지사의 지도에 따라 장갑과 앞치마, 조끼를 착용하고 연탄 쌓기·지게 운반·창고 보관 등 역할을 분담했다. 임직원들은 운반 및 보관을 담당하고 자녀들은 연탄을 지게에 싣는 등 신속한 팀워크를 발휘해 2시간여 동안 봉사를 이어갔다. 봉사 시작 이래로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임직원 자녀들은 어느새 연탄 옮기기 달인이 되어 든든하게 현장을 지켰다.

이날 선보 Family가 후원한 연탄은 1만 장으로, 이 중 3,500장은 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영세가정·조손가정 등 28가구에 나눠 당일 전달됐다. 남은 연탄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감천 지역 일대에 전달된다. 선보는 주말 단잠을 떨치고 열심히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간식과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선보 Family가 10년에 걸쳐 후원한 연탄 수는 총 10만 장에 달한다. 매년 평균 1만 장의 연탄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골고루 전해진 것이다. 봉사에 참여한 전인성 선임(설계6팀)은 “손수 한 잔씩 생각차를 타서 나눠주시며 고마워하시는 할머니와 축제같이 활기차게 봉사에 참여한 선보 가족 덕에 보람찬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웃으며 봉사를 즐긴 선보 가족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현 선임(재조달팀)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었던 봉사활동을 딸, 조카들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아이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선보는 창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해외 저개발국에 학교를 짓는 공익법인 '선보동대'와 김해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선재 장학재단'은 선보를 대표하는 나눔 공동체다. 이외에도 어린이병원 등 아동복지시설 기부, 반찬 나눔 등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 회사 소식

## 선보공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선정



선보공업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대중소벤처사업부에서 주관한 보안 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선보의 우수한 기술 보안 시스템과 운용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중소기업 시장에서 손꼽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지정 기간은 선정일인 올해 12월 2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1일까지 총 2년이다. 선도기업 선정으로 선보는 기술 보호 우수기업으로서 한층 더 높은 신뢰를 확보했

며, 향후 기술 보호 정책사업 추진비로 총 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도 기술 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 및 무상 보안 교육 제공, 기술자료 임치제도 시행, 네트워크 보안관제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선정은 선보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존속을 결정짓는 기술 보호와 정보 보안에 더욱 힘쓰고, 보안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 회사 소식

## 선보공업 '제44호 지산학 브랜치' 개소, 우수기술 이전·인재 양성이끈다



선보공업이 부산시가 산학협력 혁신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산학 협력 브랜치'의 제44호 기업 브랜치로 선정됐다.

선보공업은 지난 11월 30일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동아대 교수 등과 함께 지산학 협력 44호 브랜치 개소식을 갖고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다짐했다. 지산학 브랜치는 지역사회와 기업, 대학이 스스로 참여해 새로운 지산학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전진 기지로서 기능한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이전과 시제품 제작,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보는 ▲지역 대학에 현장실습 환경 제공 ▲대학 기술인력 채용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 ▲기술이전 협약 체결 등을 신규 추진 계획으로 제시했다. 주요 협력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등이다. 이번 브랜치 개소로 선보는 친환경 연료 기술 개발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수익 증대, 지역 내 우수 기술인력 수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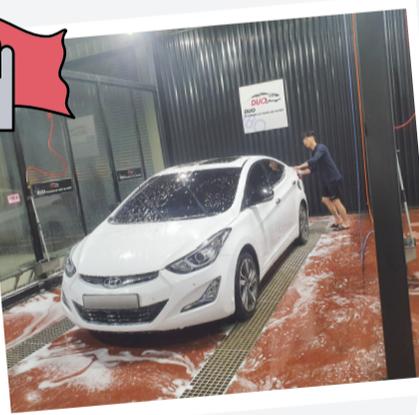
## 2022 SUNBO ACADEMY 팀장 코칭 리더십 과정 성료



선보는 지난 11월 18일 신라스테이 서부산 호텔에서 '2022 SUNBO ACADEMY 팀장 코칭 리더십 과정'(이하 팀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진행된 팀장 워크숍에는 각 사 대표이사와 팀별 임원 11명, 팀장급 직원 27명이 참석했다.

첫 일정으로는 리더의 소통법을 주제로 민승기 행복비전 연구원장 특강이 진행됐다. 오찬 후에는 조별 주제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주제로는 ▲팀장-팀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 ▲기업 이미지 제고 방안 ▲LET'S GO 2025 실행현황 및 개선방안 ▲생산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규입사자 업무스킬 level-up 계획 등이 사전 제시됐으며 각 조에서 협의를 거쳐 자유롭게 선정했다. 경영기획(1조)과 생산·품질(2~4조), 설계(5조) 각 조는 주제별 토론 끝에 사내 소통 활성화 방안과 업무 분담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조별 발표 후에는 CEO 총평(선보공업 최금식 회장)과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올 신년 준비로 분주한 시기 LET'S GO 2025 등 주요 목표를 재점검하고 팀장급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기회가 됐다.

## 선보 Family



##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선세모 동호회

“우리... (동호회)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해방클럽' 결성을 위해 모인 3인방 중 한 명이 꺼낸 말이다. 이름도 생소한 해방클럽은 정말 'OO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동호회였다. 빈칸으로 남겨둔 'OO'는 회원 각자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어떤 것으로든 채워갈 수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 회사 생활에 활력소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주제든 무슨 상관인가? 선보에도 우리만의 쉼터를 위해 마음 맞는 대로 모인 이들이 있다. “우리 모여서 세차나 하며 놀시다!” 하고 도원결의를 맺은 선세모 동호회다.

## 1. 선세모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세모는 '선보 세차 모임'의 약자로 2019년 1월 14일에 창립했습니다. 현재 회원 수는 20명으로 분기별 모임을 하고 있으며, 톡톡이 마음 맞는 회원끼리도 세차 및 친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2. 우리 동호회의 특징점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선세모는 다양한 부서에서 가입한 젊은 회원들이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잦은 친목 모임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말 못 할 애로사항을 편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호회비도 투명하게 공유해 아낌없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 3.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회원들과 세차 번개 모임을 했는데, 다음날 예보에도 없던 비가 와서 다 같이 허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함께 세차하며 모두가 즐거웠기에 만족했습니다.

## 4. 현재 선보는 복지수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호회 활동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선세모 동호회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현재 동호회 회비는 개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밖에 없어 자주 모임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월별 회비를 지원해준다면 활동 빈도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5. 앞으로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선세모 회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셀프 세차장을 통해 빌려 세차 모임을 해볼 계획입니다.

## 6. 우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탈퇴 없이 오순도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7.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선보 가족이라면 차가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니, 함께하고 싶은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선세모 회장 하은준 선임(설계4팀)

Hot Topic

‘수소용품 제조허가’ 신속 추진 위해 부서별 협업 강화해야



선보가 제작하는 수전해 시스템(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소용품 제조허가 취득이 진행 중이다. 점차 강화되는 안전 규제와 법률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제조-판매 사이클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내 부서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관리 분야)을 새롭게 시행하며 수소 설비 제조 및 판매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전해 설비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선보공업은 지난 11월 2일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선보유니텍은 현재 ▲완성검사 및 안전관리규정 심사(가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업개시 신고 ▲수소용품 검사(가스공사) 등이 남아 있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설계-품질-생산-자재 등 전 부서에 걸쳐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앞서 기술검토 단계에서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예상보다 시일이 늦춰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업 구조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수소 안전 관련법 및 가스공사의 시행원칙이 계속 개정·신설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보유니텍은 최근 허가절차 추진현황을 공유하며 “생산과 HSE, 엔지니어를 주축으로 유관 부서가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에 나설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EVENT 결과

‘우리 집 막둥이’ 자랑대회 ♥

<SUNBO NEWS> 11월호 ‘우리 집 막둥이’를 소개해주세요! 이벤트에 11명의 선보 Family가 참여해주셨습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연인처럼 내 삶의 위안이 되어주는 선보 Family의 소중한 막둥이들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 ▶ **당첨자**: 이준희 선임(경영기획) \* 추첨 진행 : 기술연구소 장호길 상무
- ▶ **부상**: 5만원권 상품권



**최치욱** 선임(설계2팀)  
짱이(8살, ♂) / 폼피츠(스피츠+포메라니안)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짱이가 초면인 저를 너무 따라서, 집사람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지금은 막둥이지만, 출산이 코앞이라 곧 막내 자리를 뺏길 예정입니다 ^^;



**김상현** 선임(전계장설계팀)  
레오(4살, ♂) / 포메라니안

결혼기념일 막둥이랑 같이 거제도 근포탕굴에 갔을 때, 제가 사진 찍는 걸 아는 지 딱 멈추고 견생샷을 만들어주는 막둥이입니다!



**원윤정** 사원(설계3팀)  
반장(13살, ♂) / 코리안 숯헤어 텍시도

반장이가 며칠 연속 이불에 실수를 해서 한번 혼냈더니 빠져서 저 멀리 있더라고요. 저도 빠져서 침대 끝에 누워 있었는데 금세 만져달라고 울면서 팔에 안겼어요. 요즘엔 매일 저한테 안겨서 자는데 잠깐이라도 자리를 뜨면 졸졸 쫓아와 다시 눕자고 운답니다.



**양시경** 사원(설계6팀)  
앙푸푸(2살, ♂) / 포메라니안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에서 입양했습니다. 3개월 된 강아지가 입마개를 한 채 주탁가에 버려져 있었죠. 가슴 아픈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유치원도 다니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푸푸는 우주보다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준희** 선임(경영기획)  
단지(7살, ♀) / 말티즈

어미가 집을 나가서 혼자 남겨졌을 때, 무슨 자신감으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산 지 벌써 7년이 됐네요. 두 아들이 좋다고 만지려 하는데 간식 줄 때만 좋아하고 왜 그리 도망 다닐까요? 단지야, 이제 좀 친해지고 늘 건강하자~



**이대현** 선임(총무팀)

작년에 어머니께서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새우와 구피, 청소물고기 등 소수로 시작해서 지금은 새우 2마리와 구피 2~30마리 정도가 됐네요. 암수가 섞여 있어 교배가 활발하답니다. 갓 태어난 아이부터 성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양태진** 선임(선보피츠 품질팀)  
미호(1살, ♀) / 랙돌

우연히 캐터리에 갔다가 묘연으로 입양하게 됐어요. 처음 집에 왔을 땐 적응을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개냥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성문** 사원(설계5팀)  
알라 🌱

제 방이 너무 칙칙해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어머니께서 ‘알라’라는 식물을 사주셨습니다. 파릇파릇한 초록 잎 사이 붉은 잎사귀가 매력인 저희 집 막내입니다.



**고중현** 책임(설계3팀)  
미니&토리 / 햄스터

자녀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지만, 관리가 힘들 것 같아 햄스터로 합의를 봤습니다. 눈만 뜨면 햄스터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들이 너무 귀엽습니다.



**김소연** 선임(재무인사팀)  
김단군(♂) / 크림푸들

‘가을남자 김단군’. 개천절에 가족이 된 만 5년 차 프로명명! 축축한 아침 이슬 그득한 잔디밭에 뒹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덕분에 (사진처럼) 산책할 때마다 곱슬곱슬 꼬질꼬질하지만, 이런 모습도 가족에겐 사랑입니다♡



**최두영** 책임(재무인사팀)  
영이(5살, ♂) / 포메라니안

강릉여행중 예쁜 카페에서 대기 중에 한컷. 우리 집 막둥이 영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한결같이 기쁨만 주는 존재입니다. 영이만큼은 부족함없이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나눔

## 선보하이텍 연말 선행 릴레이 이어져... 근로자 의료비 전달·어르신 자전거 기탁 등



선보하이텍이 훈훈한 선행 릴레이를 이어가며 사내 협력사와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대불산단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별안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영산업 소속 근로자 상크였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상크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막힌 혈관을 뚫는 긴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마무리됐고, 상크는 약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1월 22일 공장으로 정상 출근했다. 소식을 접한 선보하이텍 이규현 전무를 비롯한 영암공장 임직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 1백만 원을 상크에게 의료비로 전달했다. 이규현 전무가 덕담과 함께 직접 전한 봉투는 타국

으로 건너와 성실히 일하는 동료의 건강을 걱정하는 선보 Family의 마음이었다. 선보는 가족친화경영을 지향하며 임직원들 개개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선보하이텍 최금식 회장이 영암공장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자전거와 자물쇠, 안전모를 기탁했다.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어 읍내 편의시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사연을 접한 최금식 회장이 해당 가정에 기탁한 것이다.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발굴하면 선보가 지원하는 선행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선보하이텍이 5년째 삼호읍에 기탁해온 성금 500만 원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 선보공업 소방훈련 실시



선보공업은 임직원들의 재난재해 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사흘간 다대1·2공장, 선보피스 김해공장 등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생산직과 관리직 임직원 전체가 참여한 이번 훈련에는 화재진압(소화기·소화전 사용 실

습) 및 대피, 구조 응급 처치(CPR) 교육 등이 포함됐다. 먼저 참여자 역할을 사내방송(1명)과 소화기(2명), 소화전(3명), 환자(1명), 들것(4명), 대피 유도(2명)로 구분한 후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실시 후에는 대표이사 강평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겨울 날씨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근로자 비율도 높아져 임직원들의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이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훈련에 참여한 이수진 선임(영업팀)은 “소방호스로 불을 꺼본 것도, CPR을 해본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이번 훈련 경험이 큰 배움이 된 것 같다”며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방법과 자세를 제대로 교정해 다음 기회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특히 CPR 교육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9일 사하소방서에서 열린 제60주년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는 선보공업 한승진 선임이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EVENT

## 인생도서, 이 책 어때요?

선보는 임원·팀장 독서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며 선보 Family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트렌드 적응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NBO NEWS> 12월호에서는 선보 Family의 남다른 시각을 담은 ‘인생도서 추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읽을 만한 도서를 자유롭게 추천해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리스트는 2023 선보 추천 도서 리스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8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제출 예시 :



- 도서명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나에게
- 저 자 : 최대호
- 추천 이유 : 하루하루 현실의 벽과 부딪히며 자존감이 떨어진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 제출일 : 12월 30일(금)까지

▶ 추첨 : 1월 3일(화) 무작위 추첨 후 선보 Family SNS 계정을 통해 발표

▶ 상품 : 1등 치킨 교환권(1명) / 2등 배스킨라빈스 교환권(2명) / 3등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5명)

SUNBO NEWS를 만드는 사람들

• 총괄 편집 김자영 사원

• 총괄 감수 이준희 선임, 배상준 사원

• 인사, 교육 김정석 팀장

• 제작 미디어룸 (Tel. 051. 623. 1906)

• 총무, 행사, HSE 김영관 선임, 이대현 선임

생일축하합니다 ※ 양력 변환일

본사	윤동현(12.03)	박성환(12.12)
	김진황(12.04)	이동원(12.19)
	전예지(12.05)	최상식(12.19)
	정영훈(12.06)	서진호(12.20)
	김정석(12.07)	노영훈(12.21)
	이현수(12.09)	박정향(12.22)
	성창훈(12.10)	박상계(12.25)
	정차균(12.11)	정유혁(12.27)

다대1공장	명철환(12.15)	강현욱(12.27)
	조숙희(12.15)	김수한(12.28)
	신승훈(12.18)	장형규(12.29)

다대2공장	김규동(12.01)	김종민(12.15)
	이문정(12.10)	이영철(12.16)
	양청수(12.12)	정상규(12.22)

구평공장	구성민(12.05)	조남석(12.15)
	권수인(12.05)	육현근(12.19)
	하현욱(12.09)	김태준(12.27)
	구진호(12.11)	장효준(12.28)
	이태윤(12.12)	하만수(12.31)

영암공장	수산타(12.02)	우메쉬(12.13)
	이강윤(12.10)	

입사기념일

본사	김소연(12.01)	배상욱(12.05)
	이명호(12.01)	손상민(12.05)
	이진하(12.01)	장동후(12.05)
	공형조(12.02)	이동주(12.09)
	전성민(12.02)	정영훈(12.14)
	문해기(12.03)	이수진(12.21)
	김현우(12.05)	이화진(12.21)

다대1공장	최진희(12.16)	박영호(12.27)
-------	------------	------------

다대2공장	이영철(12.01)	캠비발(12.16)
	김남석(12.05)	타오싱(12.16)
	강평문(12.06)	푼 투(12.16)
	상 굴(12.16)	장상권(12.26)

구평공장	권수인(12.01)	박성신(12.05)
	하경원(12.01)	김태준(12.19)
	김충복(12.05)	

영암공장	김동선(12.01)	권상웅(12.08)
	강상우(12.03)	